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 개발 연구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aternal Happiness Scale for  
Mothers with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정계숙(Kaisook Chung)<sup>1</sup> · 박재국(Jaekook Park)<sup>2</sup> · 박수홍(Suhong Park)<sup>3</sup> · 유미숙(Meesook Yoo)<sup>4</sup> ·  
최은실(Eunsil Choi)<sup>5</sup> · 서보순(Bosoon Seo)<sup>6</sup>

<sup>1</sup>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3</sup>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4</sup>Departmen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up>5</sup>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sup>6</sup>Busan Gueje Elementary School Kindergarte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validate a maternal happiness scale which can be used for mothers who take care of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First, the maternal happiness scale was developed based on literature review and the consent of experts. Finally it was consisted of 56 items from 18 elements of happiness through checking the contents validity with professionals. Second, final respondents for the survey were 1300 mothers who had children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in Seoul, Busan, Gyeonggi, and Kyungnam. Third, the 8 factors including the 53 items were extracted through the mothers' appraisal of the items and the review of the adequacy for the factor analysis. The 8 factors were consisted with 'Family relations with family', 'Laid-back life and self-esteem', 'Physical and mental health', 'Independency and development', 'Spirituality', 'Interpersonal relations', 'Appearance', 'Sociocultural environment'. Fourth, the maternal happiness scale demonstrated appropriate levels of construct validity, item internal consistency, distribution of item response, and item discrimi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core factors of maternal happiness. In addition, th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supporting mothers who take care of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주제어(Keywords) : 어머니의 행복감(maternal happiness), 행복감 척도(happiness scale), 유아 · 아동(young & school-aged children) 청소년(adolescents)

I. 서론

행복한 삶은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인류의 최대 관심사이

자 목표이다. 사상에 따라 관점에 따라 행복은 삶의 질  
(quality of life), 참행복(authentic happiness), 긍정적 정서  
(positive emotion),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Corresponding Author : Bosoon Seo, Busan Gueje Elementary School Kindergarten, 39, Haemaji-ro, Yeonje-gu, Busan, 611-074, Korea  
Tel: +82-051-506-0374, Fax: +82-051-505-1265, E-mail: sbsboss@hanmail.net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30-B00168).

Copyright © 2013,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All rights reserved.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또는 욕구가 충족되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39]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행복에 대한 고대 철학적 관점은 크게 쾌락주의와 행복주의로 나눌 수 있다[30]. 쾌락주의에서 보는 행복한 삶이란 기분이 좋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을 추구하는 삶이다. 이에 반해 행복주의에서는 삶의 목적을 인식하고, 자신의 내적 잠재성을 개발하며, 덕을 추구하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하였다[22].

이러한 행복에 대한 오랜 철학적 고민들은 긍정심리학을 통해 행복을 보다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주제로 거듭나게 되었다[38]. 고대의 두 가지 철학적 관점은 과학적 연구 주제가 된 행복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다. 기분이 좋고 만족스러운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을 중시하는 쾌락주의 관점은 긍정적인 정서가 많고 부정적인 정서가 적으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보는 주관적 안녕감으로 발전되어 수많은 실증적인 연구가 국내외에서 이루어져 왔다[5, 6, 18, 19]. 또한, 행복주의 관점은 단지 주관적으로 자신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심리적 능력이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원활한 상태를 행복이라고 보는 심리적 안녕감[31]의 개념으로 이어져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다[32].

최근 들어 행복에 관한 연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행복 또는 행복의 요소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이러한 가운데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행복을 측정하는 문항 또한 문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 11, 17, 21]. Chiasson 외는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까?”라는 질문을 4가지 문화권의 피험자에게 물어 문화권에 따른 행복의 차이를 설명하였다[2].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4가지 문화권에서 행복의 요소들은 비슷하게 추출되었으나, 문화에 따라 강조하는 면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주의적 문화권인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생활에서의 즐거움과 긍정적인 인생관, 개인의 장점 등이 행복에 있어 중요하다고 나타난 반면, 집단주의적 문화인 엘살바도르인들은 사회정치적 여건이나 종교적 가치 등이 그들의 행복에 더욱 중요하다고 대답하였다. Lee 외는 한국과 캐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Chiasson 외와 같은 질문을 던져 행복의 문화 차이를 연구하였다[2, 21]. 이들 또한 가족, 대인관계, 경제적 풍요로움, 창의성, 예술, 자율성, 종교, 인생의 목표, 스트레스 없음, 건강, 능력, 인정, 지적 능력, 이타적 행동이라는 행복의 14가지 요소는 똑같이 추출되었으나, 집단주의적 문화인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인관계나 종교 등을 더욱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복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내에서 한국 성인의 행복 구성 요소를 직접 탐색하고 추출하고자 한 연구[17]에서 한국인의 행복 구성 요소는

경제력, 사회문화환경, 건강, 외모, 자녀의 올바른 성장, 부모 형제관계,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 대인관계, 사회적 지위와 인정,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자기 개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종교, 이타심, 긍정적 인생관 등 총 16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주로 주관적 안녕감이나 심리적 안녕감으로 측정되어 온 행복의 개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일반 한국 성인들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게다가 최근 들어 주관적 안녕감의 주요 가정인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독립적이라는 가정이 한국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나오고 있다. 즉, 한국 사람들에게서 자주 보이는 ‘애증’, ‘시원섭섭’, ‘한과 신명’ 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가 혼재되어 있는 복합적 정서는 개인주의적 문화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경험 방식과는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 사람에 있어 행복은 자기 가치감을 발휘하는 ‘신명’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10, 11]. 이에 한국 어머니의 행복감 측정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일반 대인 관계 등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 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관계적 요소를 행복의 주요 요소로 포함하여야 하며, 자기 가치감을 발휘하는 신명은 사회적, 심리적으로 건강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심리적 안녕감의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행복을 개념화하고 측정함에 있어 또 하나 고려할 점은 행복이 그 사람의 상황과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점이다[18, 19, 20, 41]. 즉, 행복의 이론이 행복의 주요 기준은 될 수 있으나 보다 정확히 행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한 맥락적 요인 및 상황, 즉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11, 15]. Kim 외는 청소년의 행복은 청소년이 처해 있는 상황과 맥락을 최대한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한국 청소년 행복 구성 요인을 친구관계, 교사관계,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정, 학습활동 즐거움, 환경만족과 같은 총 6요인이라고 하였다[14]. 또한 Shin은 한국 대학생의 행복 척도를 개발하면서 이들의 행복은 경제적 요인, 건강, 자기만족·수용·가치관 성격, 능력·자기개발·목표추구, 직업 목표·진로·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심·외모·신체조건, 자율성·독립성·자립성·자유·개성, 휴가·여가·취미, 종교, 가족관계, 이성 친구, 친구·대인관계 등의 요인 등으로 이루어짐을 제시하였다(pp.14-31)[36].

이처럼 한 사람의 행복을 이해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이 속한 문화와 맥락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중요하다면, 한국이라는 집단주의적 문화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행복은 일반 성인의 행복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행복은 독립된 개체인 성인으로서 느끼는 행복 뿐 아니라 가정이라는 맥락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관계적 의존성

과 역동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집단주의적 문화에 속한 한국의 부모 자녀 관계가 개인주의적 문화인 서양에 비해 더욱 상호존중적이며[23, 37], 자기를 표현할 때에도 소속 집단이나 사회적 관계, 예를 들어, 자신을 'OO 엄마'로 표현하는 데 더욱 익숙한 것[40]등에서 그 특이성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전업 주부들의 행복에 있어 자녀의 성공은 남편의 소득만큼이나 설명력이 큰 것이라는 연구결과[29]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녀의 성장은 성인초기와 중기의 여성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고[34], 자녀의 성과 연령, 모-자녀관계는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쳤다[26]. 나이가 어머니들 스스로도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자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였다[4].

어머니의 행복감에 대한 자녀의 영향은 자녀의 생애주기나 자녀의 발달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어린 자녀를 돌보거나 가사 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자기 계발이나 여가 활동의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9].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아동의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 적응 지원, 전자 매체 사용 지도, 행동 문제 지도를 위한 훈육법의 변화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 부담으로 인한 부부 갈등과 경제 재조정 등(pp. 183-206)[12], 아동기의 부모역할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므로[3], 이러한 심리적 부담은 어머니의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청소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심리적으로 독립하고 자율적이고자 하며 때로는 반항적인 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자녀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함께 받을 수 있다 하였다(pp. 245-246)[13]. 이에 덧붙여 장애아동의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해 일반아동의 부모와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며, 이는 부모의 역할에 부담을 가중시켜 부모와 자녀의 행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27], 특히 자녀의 장애 여부 및 장애정도가 부모의 행복감과 관련이 있고[8], 장애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도 달라진다[28]는 연구결과도 소개되었다.

이처럼 한국 어머니의 특성과 어머니의 행복에 자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을 토대로 볼 때 한국 어머니, 특히 비성인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에 있어 자녀 관련 요소는 다른 행복 요소들에 비해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하며, 어머니 행복 구성요소들은 일반 성인 행복과 동일한 요소라 할지라도 어머니라는 입장과 상황을 반영하는 요소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력 요소가 일반 성인의 행복의 구성요소로 측정될 때에는 자신의 욕구 충족이나 자기 계발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라면, 어머니 행복 구성요소로 측정될 때에는 아이들의 욕구 충족과 발달 및 학업 성취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경

계력이 강조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아동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생태체계 요인으로서, 그리고 부모자신의 심리적으로 안녕한 삶을 위하여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4, 14, 24, 26]. 이 연구들은 대략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경험 정도와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로 측정하는 주관적 안녕감을 어머니 행복으로 개념화하여 측정된 경우와, 일반 성인의 행복감 척도의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거나 일부 보완하는 수준에서 부모의 행복감을 측정된 경우로 나누어진다. 후자의 척도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은 반영하였으나 부모의 행복감 측정을 목적으로 개발된 도구가 아니므로 부모라는 상황적 맥락이 충실히 고려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나아가 비성인기 자녀를 둔 부모의 상황적 관심과 자녀의 장애 여부라는 독특한 상황적 맥락이 반영된 부모의 행복감 척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의 행복 그 자체의 특성과 경향 뿐 아니라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의 자녀를 포함한 주변 사람과의 관계나 발달적, 교육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적절한 부모 행복 척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어머니라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하여 유아기부터 청소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행복감 척도의 양호도는 어떠한가?
  - 1)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행복감 척도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 2)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2.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행복감 척도의 문항 양호도는 어떠한가?
  - 1)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행복감 척도의 문항반응분포는 어떠한가?
  - 2)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 행복감 척도의 문항 변별도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고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울, 부산, 경기, 경남에 거주하며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

Table 1.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N = 1,300)

	Variables	N	%
Mother's age	Under 35 years old	198	15.2
	35 years old ~ 39 years old	437	33.6
	40 years old ~ 44 years old	455	35.0
	Above 45 years old	190	14.6
	Non-response	20	1.5
Mother's education	Below middle school	46	3.5
	High school	605	46.5
	University	579	44.5
	Above graduate school	49	3.8
Maternal employment	Employment	653	50.2
	Unemployment	613	47.2
	Non-response	34	2.6
Monthly family income	Less than 2,000,000won	220	16.9
	2,000,000~less than 3,000,000won	321	24.7
	3,000,000~less than 4,000,000won	364	28.0
	More than 4,000,000won	363	27.9
	Non-response	32	2.5
Child's age	1 years old ~ 5 years old	374	28.8
	6 years old ~ 11 years old	565	43.5
	12 years old ~17 years old	361	27.8
Child's gender	Boy	795	61.2
	Girl	504	38.8
	Non-response	1	0.1
Number of children	1	235	18.1
	2	844	64.9
	3	211	16.2
	Non-response	10	0.8
Child's disability	Mother of a child with non-disability	1,053	81.0
	Mother of a child with disabilities	247	19.0

\* $p < .05$ . \*\*\* $p < .001$ .

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비장애 자녀의 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부모 관련 척도들의 제한점을 극복하여 보편적인 어머니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도 대상에 포함하였다. 자녀의 생애주기별로 각 600명씩 총

180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는데, 이 중 1,324명의 어머니가 설문에 응했으며 최종 1300명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연령분포는 만 40세에서 만 44세가 455명(35.0%), 만 35에서 만 39세가 437명(33.6%)으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학력은 고졸이 605명(46.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맞벌이를 하고 있는 어머니가 653명(50.2%)이었다. 또 응답자들 가운데는 만 6세에서 만 11세의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565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남아의 어머니가 795명(61.2%)이었으며, 2명의 자녀를 둔 경우가 844명(64.9%)으로 그 비율이 높았다. 전체 어머니들은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 247명(19.0%)와 비장애 자녀의 어머니 1,053명(81.0%)으로 구성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구성하고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된 어머니 행복감 척도 2차 시안을 적용하여 척도의 적절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잘 반영하면서 여러 연구를 통해 타당성을 입증 받았다고 생각되는 Kim 외[17]의 16가지 한국인의 행복 요소를 기준으로 하고, Diener 외[6], Ryff 외[33] 및 Seligman(pp. 16-25)[35]의 행복의 요소 중 Kim 외의 16가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몰입과 긍정적 정서 요소를 함께 포함하여 총 18가지로 어머니 행복감 요소를 구성하였다. 각 요소별로 3가지의 하위항목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로서의 행복에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Kim 외[16]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과 자녀 관계' 요소는 5개 항목을 포함해 총 56개의 항목으로 도구를 마련하였다. 또한 경제력 요소는 자녀의 양육, 학업과 발달에 대한 뒷받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모든 문장은 어머니 관점에서 행복감을 판단할 수 있게 수정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척도의 각 항목이 어머니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와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한지를 평정할 수 있는 Likert 척도로 구성하되, 가치판단 없이 중립적 의견에 주로 응답하는 중앙 집중 경향의 오류를 피하고자 6점 척도로 제작하였다. 척도의 내용 구성 및 문항 수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tents of maternal happiness scale

The factors of mother's happiness	
Economic strength (3), Sociocultural environment (3), Health (3), Appearance (3), Relations with children and children grow up well (5), Relations with parent and relatives (3), Marital relations (3), Interpersonal relations (3), Social status and acknowledgment (3), Accomplishment and self-acceptance (3), Leisure (3), Self-development (3), Independency (3), Religion (3), Altruism (3), Positive view of life (3), Flow (3), Positive emotion (3)	
Total items	56 items

3. 연구 절차

1)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의 개발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척도 1차 시안을 구성하였다. 둘째, 척도 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용타당도를 검토하고 수정하여 2차 시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척도 시안에 대한 어머니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

(1)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 시안 구성

행복 관련 선행연구를 기초로 어머니 행복감 척도 1차 시안을 구성하였다.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행복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먼저, 자아존중감, 수용감, 자율성, 긍정적 정서, 성취감, 만족감 등의 내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pp. 8-22)[1], [7, 10, 17], (pp. 89-206)[25], [33], (pp. 16-25)[35], (pp. 14-31)[36]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경제력, 직업, 돈과 같은 경제적 요인, 신체조건, 외모, 유머, 건강과 같은 신체적 요인, 사회, 정치, 문화, 종교, 교육과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포함하는 외부적인 요인들(pp. 8-22)[1], [7, 10, 17]도 거론되고 있었다. 이에 더해 대인관계, 긍정적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환경에 대한 통제감과 같이 내외적 요인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요인들도 강조되고 있었다(pp. 8-22)[1], [7, 17, 33], (pp. 16-25)[35], (pp. 14-19)[36]. 특히 집단주의적 문화에 속한 한국에서 부모 자녀관계는 매우 의존적임이 대두되면서, 관계적 요인 중에서도 자

녀와의 관계는 어머니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 조 명되고 있었다[26, 37].

이에 본 연구자들은 선행연구에서 행복요인으로 밝혀진 바 있는 관련 영역을 반영하되 연관성이 높은 내용은 통합하고, 어머니 행복 척도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경제력', '사회·문화·교육 환경', '외모', '건강', '자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대인관계', '사회적 지위와 인정', '성취 및 자기수용', '여가', '자기 개발 및 목표추구', '자립성', '종교', '이타심', '긍정적 인생관', '몰입', '긍정적 정서'로 도출하였다. 또한 선행연구 문헌과 연구 결과 및 기존의 행복척도를 참고하여 각 요인에 따라 3항목씩 추출하여 총 18개 요소 54항목으로 구성된 7점 척도의 어머니 행복감 척도 1차 시안을 구성하였다. 요소 추출 시 참고하였던 관련 문헌들에서 제시한 행복요소는 Table 3와 같다.

(2) 시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 1차안의 적절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아동학, 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전공 교수 4명, 박사급 연구원 1명, 박사과정 수료자 4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게 내용타당도를 의뢰하였다. 또한 연구자들은 내용타당도의 준거로 연구목적의 적절성, 내용의 일관성, 각 요인 내 문항 간 상호배타성, 용어 사용의 적절성, 응답 방식의 적절성, 문항의 이해도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1차 시안의 전반적인 체계가 잘 구성되었다고 여기고 있었으나, '사회·문화·교육환경'과 '자녀와의 관계', '가

Table 3. The factors of happiness in references

Factors of happiness	Ref.
Joy and other positive emotions, satisfaction, humour and laughter, social relationships, work and employment, leisure, money, class and education, personality, age and gender, religion	[1]
Family,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financial/materialistic, independence/autonomy, spiritual/religious, goal/mission in life, stress-free, worry-free life, health, competence/ability, recognition by others, knowledge, altruistic behavior, creativity, artistic	[2, 21]
Purpose and meaning, relationships supportive, engaged, contribute to others, competence, good person, optimistic, respected	[7]
Conditions of shinmyeng, shinmyeng contextual conditions, emotion of shinmyeng, behavior of shinmyeng, effects of shinmyeng	[10]
Economic strength, society·politics·culture·environment, appearance, health, good growth of children, family relationships, love with spouse, relationships with others, social standing, self-acceptance, self-development, independence, leisure, positive view of life, community services, religion	[17]
Positive mind, immersion, ability to delay gratification, self-determination, moral intelligence	[25]
Autonomy, environmental mastery, personal growth,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purpose in life, self-acceptance	[33]
Positive emotion, engagement, meaning, positive relationships, accomplishment	[35]
Economic factors, faith, self-satisfaction·acceptance·values, ability·self-development·goal-orientation, goal inventory·career·social status, social interest·appearance·physical conditions, autonomy·independence·independent behavior·freedom·personality, leave·leisure·hobby, religion, family relationships, romantic relationships, friendship·relationships with others, the others	[36]

죽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고, 상호배타적인 용어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사회·문화환경'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 및 자녀관계', '부모친지관계', '배우자와의 사랑과 신뢰'로 변경하였다. 이에 덧붙여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요소를 더욱 강화할 것이 요구되었기에 '자녀의 올바른 성장 및 자녀관계' 요소에 2개 항목을 더 추가하기로 하였다. 한편 평정방법에 대해서는 어머니들이 자신의 의견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도록 6점 척도로 제작할 것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1차안을 수정·보완하여 18개 요소 56문항으로 구성된 2차 시안을 도출하였다.

(3) 시안에 대한 어머니들의 적절성 평정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어머니들이 각 항목의 필요도를 평정한 결과를 살펴보았다. 각 항목이 어머니의 행복한 삶을 위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여기는지를 '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1점부터 '매우 필요하다'의 6점까지 평정하도록 하였다. 행복요소별 하위항목에 대한 적절성 평정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는 Table 4와 같다.

어머니 행복감 척도의 적절성 평정 분석 결과 필요도 전체 평균이 4.65, 표준편차 .79로 하위 항목의 적절성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자녀의 올바른 성장 및 자녀

Table 4. Mother's adequacy evaluation of happiness factors and items (N = 1,300)

Factors	Items	N (%)						M	SD	
		Non-response	1	2	3	4	5			6
①	1	33(2.5)	14(1.1)	31(2.4)	140(10.8)	336(25.8)	470(36.2)	276(21.2)	4.61	1.08
	2	32(2.5)	16(1.2)	44(3.4)	185(14.2)	312(24.0)	464(35.7)	247(19.0)	4.50	1.14
	3	34(2.6)	18(1.4)	46(3.5)	190(14.6)	295(22.7)	475(36.5)	242(18.6)	4.49	1.15
<b>The mean of factor</b>								<b>4.54</b>	<b>1.07</b>	
②	4	41(3.2)	10(.8)	22(1.7)	107(8.2)	211(16.2)	404(31.1)	505(38.8)	4.98	1.09
	5	41(3.2)	8(.6)	26(2.0)	115(8.8)	248(19.1)	391(30.1)	471(36.2)	4.91	1.10
	6	44(3.4)	22(1.7)	30(2.3)	120(9.2)	255(19.6)	399(30.7)	430(33.1)	4.81	1.18
<b>The mean of factor</b>								<b>4.90</b>	<b>1.03</b>	
③	7	41(3.2)	15(1.2)	42(3.2)	243(18.7)	447(34.4)	370(28.5)	142(10.9)	4.22	1.06
	8	41(3.2)	13(1.0)	35(2.7)	174(13.4)	437(33.6)	396(30.5)	203(15.6)	4.41	1.06
	9	42(3.2)	21(1.6)	38(2.9)	169(13.0)	393(30.2)	400(30.8)	237(18.2)	4.45	1.13
<b>The mean of factor</b>								<b>4.36</b>	<b>.96</b>	
④	10	41(3.2)	8(.6)	21(1.6)	113(8.7)	290(22.3)	457(35.2)	370(28.5)	4.81	1.05
	11	42(3.2)	7(.5)	11(.8)	65(5.0)	157(12.1)	377(29.0)	641(49.3)	5.23	.98
	12	41(3.2)	7(.5)	8(.6)	74(5.7)	179(13.8)	387(29.8)	604(46.5)	5.18	.99
<b>The mean of factor</b>								<b>5.07</b>	<b>.92</b>	
⑤	13	42(3.2)	8(.6)	11(.8)	50(3.8)	156(12.0)	344(26.5)	689(53.0)	5.29	.96
	14	42(3.2)	10(.8)	15(1.2)	69(5.3)	185(14.2)	438(33.7)	541(41.6)	5.11	1.01
	15	51(3.9)	11(.8)	13(1.0)	64(4.9)	170(13.1)	363(27.9)	628(48.3)	5.20	1.02
	16	41(3.2)	7(.5)	11(.8)	65(5.0)	153(11.8)	370(28.5)	653(50.2)	5.25	.98
	17	41(3.2)	4(.3)	13(1.0)	63(4.8)	172(13.2)	398(30.6)	609(46.8)	5.20	.96
<b>The mean of factor</b>								<b>5.21</b>	<b>.89</b>	
⑥	18	43(3.3)	5(.4)	15(1.2)	56(4.3)	171(13.2)	377(29.0)	633(48.7)	5.23	.97
	19	43(3.3)	11(.8)	15(1.2)	92(7.1)	254(19.5)	458(35.2)	427(32.8)	4.92	1.04
	20	44(3.3)	7(.5)	17(1.3)	81(6.2)	256(19.7)	463(35.6)	432(33.2)	4.95	1.01
<b>The mean of factor</b>								<b>5.03</b>	<b>.92</b>	
⑦	21	44(3.3)	16(1.2)	20(1.5)	62(4.8)	182(14.0)	399(30.7)	577(44.4)	5.12	1.07
	22	47(3.6)	26(2.0)	32(2.5)	112(8.6)	262(20.2)	420(32.3)	401(30.8)	4.77	1.18
	23	42(3.2)	12(.9)	13(1.0)	62(4.8)	164(12.6)	412(31.7)	595(45.8)	5.17	1.01
<b>The mean of factor</b>								<b>5.02</b>	<b>.99</b>	
⑧	24	42(3.2)	11(.8)	26(2.0)	104(8.0)	326(25.1)	472(36.3)	319(24.5)	4.73	1.05
	25	42(3.2)	12(.9)	29(2.2)	146(11.2)	411(31.6)	431(33.2)	229(17.6)	4.52	1.05
	26	47(3.6)	12(.9)	27(2.1)	143(11.0)	377(29.0)	448(34.5)	246(18.9)	4.56	1.05
<b>The mean of factor</b>								<b>4.61</b>	<b>.98</b>	

Table 4.  
Continued

Factors	Items	N (%)							M	SD
		Non-response	1	2	3	4	5	6		
⑨	27	34(2.6)	36(2.8)	78(6.0)	273(21.0)	402(30.9)	318(24.5)	159(12.2)	4.08	1.21
	28	43(3.3)	31(2.4)	50(3.8)	256(19.7)	424(32.6)	359(27.6)	137(10.5)	4.15	1.13
	29	42(3.2)	42(3.2)	88(6.8)	301(23.2)	437(33.6)	298(22.9)	92(7.1)	3.90	1.16
<b>The mean of factor</b>								<b>4.04</b>	<b>1.03</b>	
⑩	30	38(2.9)	23(1.8)	53(4.1)	214(16.5)	350(26.9)	432(33.2)	190(14.6)	4.34	1.16
	31	33(2.5)	13(1.0)	42(3.2)	138(10.6)	284(21.8)	464(35.7)	326(25.1)	4.67	1.13
	32	34(2.6)	14(1.1)	38(2.9)	134(10.3)	304(23.4)	471(36.2)	305(23.5)	4.65	1.11
<b>The mean of factor</b>								<b>4.56</b>	<b>1.05</b>	
⑪	33	33(2.5)	26(2.0)	66(5.1)	153(11.8)	309(23.8)	440(33.8)	273(21.0)	4.49	1.22
	34	35(2.6)	23(1.8)	56(4.3)	141(10.8)	278(21.4)	448(34.5)	319(24.5)	4.60	1.20
	35	33(2.5)	42(3.2)	63(4.8)	179(13.8)	306(23.5)	421(32.4)	256(19.7)	4.40	1.27
<b>The mean of factor</b>								<b>4.50</b>	<b>1.15</b>	
⑫	36	46(3.5)	15(1.2)	39(3.0)	150(11.5)	298(22.9)	417(32.1)	335(25.8)	4.65	1.15
	37	41(3.2)	16(1.2)	25(1.9)	118(9.1)	297(22.8)	457(35.2)	346(26.6)	4.74	1.10
	38	43(3.3)	19(1.5)	27(2.1)	143(11.0)	336(25.8)	417(32.1)	315(24.2)	4.63	1.13
<b>The mean of factor</b>								<b>4.67</b>	<b>1.04</b>	
⑬	39	45(3.5)	7(.5)	22(1.7)	91(7.0)	262(20.2)	464(35.7)	409(31.5)	4.90	1.03
	40	45(3.5)	6(.5)	24(1.8)	100(7.7)	265(20.4)	459(35.3)	404(31.1)	4.88	1.04
	41	42(3.2)	10(.8)	27(2.1)	110(8.5)	318(24.5)	473(36.4)	320(24.6)	4.73	1.05
<b>The mean of factor</b>								<b>4.83</b>	<b>.95</b>	
⑭	42	44(3.4)	138(10.6)	144(11.1)	278(21.4)	297(22.8)	197(15.2)	202(15.5)	3.70	1.54
	43	43(3.3)	162(12.5)	176(13.5)	309(23.8)	284(21.8)	173(13.3)	153(11.8)	3.47	1.52
	44	45(3.5)	178(13.7)	174(13.4)	296(22.8)	267(20.5)	171(13.2)	169(13.0)	3.47	1.57
<b>The mean of factor</b>								<b>3.54</b>	<b>1.49</b>	
⑮	45	42(3.2)	51(3.9)	77(5.9)	227(17.5)	374(28.8)	341(26.2)	188(14.5)	4.15	1.28
	46	41(3.2)	45(3.5)	82(6.3)	227(17.5)	414(31.8)	318(24.5)	173(13.3)	4.11	1.25
	47	43(3.3)	24(1.8)	43(3.3)	186(14.3)	356(27.4)	397(30.5)	251(19.3)	4.44	1.17
<b>The mean of factor</b>								<b>4.23</b>	<b>1.15</b>	
⑯	48	41(3.2)	8(.6)	23(1.8)	91(7.0)	219(16.8)	450(34.6)	468(36.0)	4.97	1.05
	49	41(3.2)	7(.5)	21(1.6)	89(6.8)	246(18.9)	463(35.6)	433(33.3)	4.93	1.03
	50	45(3.5)	8(.6)	20(1.5)	81(6.2)	238(18.3)	454(34.9)	454(34.9)	4.97	1.03
<b>The mean of factor</b>								<b>4.96</b>	<b>.96</b>	
⑰	51	46(3.5)	15(1.2)	33(2.5)	146(11.2)	376(28.9)	412(31.7)	272(20.9)	4.56	1.10
	52	45(3.5)	11(.8)	29(2.2)	112(8.6)	293(22.5)	439(33.8)	371(28.5)	4.78	1.09
	53	44(3.4)	12(.9)	33(2.5)	100(7.7)	296(22.8)	459(35.3)	356(27.4)	4.85	2.87
<b>The mean of factor</b>								<b>4.73</b>	<b>1.35</b>	
⑱	54	42(3.2)	8(.6)	23(1.8)	80(6.2)	241(18.5)	429(33.0)	477(36.7)	4.98	1.04
	55	41(3.2)	6(.5)	14(1.1)	74(5.7)	164(12.6)	400(30.8)	601(46.2)	5.18	.99
	56	43(3.3)	8(.6)	23(1.8)	86(6.6)	225(17.3)	446(34.3)	469(36.1)	4.98	1.05
<b>The mean of factor</b>								<b>5.04</b>	<b>.96</b>	
<b>The mean of total items</b>								<b>4.65</b>	<b>.79</b>	

Note. ① Economic power ② Sociocultural environment ③ Health ④ Appearance ⑤ Relations with children ⑥ Relations with parent and relatives ⑦ Marital relation ⑧ Interpersonal relations ⑨ Social status and acknowledgment ⑩ Accomplishment and self-acceptance ⑪ Leisure ⑫ Self-development ⑬ Independency ⑭ Religion ⑮ Altruism ⑯ Positive view of life ⑰ Flow ⑱ Positive emotions

와의 관계' 요소(M = 5.21), '외모' 요소(M = 5.07) '긍정적 정서' 요소(M = 5.04) 등에서 높은 필요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종교' 요소(M = 3.54), '사회적 지위와 인정' 요소(M = 4.04), '이타심' 요소(M = 4.23) 등은 상대적으로 필요도가 낮았다.

이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6개의 항목 중 4개 항목을 제외한 52개 항목의 평균이 4.00 이상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그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는 항목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 및 자녀와의 관계' 요소의 13번(M = 5.29), 16번(M = 5.25), '외모' 요소의 11번(M = 5.23), '부모 친지관계' 요소의 18번(M = 5.23)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지위와 인정' 요소의 29번(M = 3.90)과 '종교' 요소의 42번(M = 3.70), 43번(M = 3.47), 44번(M = 3.47)항목들은 적절성 평균이 낮게 도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항목들은 부정적 인식을 표출하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나 '거의 필요하지 않다.'(2점)에 응답한 빈도가 29번 항목 10.0%, 42번 항목 21.7%, 43번 항목 26.0%, 44번 항목 27.1%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행복감 척도에 대한 어머니들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본 연구자들은 2차 시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먼저, 적절성 평정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얻은 29번 '높은 학력을 가지는 것', 43번 '종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 44번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 문항을 삭제하였다. 한편 42번 '종교를 가지는 것' 항목은 응답 결과가 부정적이긴 했으나, '종교' 요소는 관련 선행연구들(pp. 8-22)[1], [17], (pp. 14-31) [36]에서 주요한 행복요소로 꼽고 있었기에, 요소 내 하위항목 적절성 평정 결과가 상대적으로 높고 문항내용이 종교요소를 대표하고 있는 42번 문항만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는 총 5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2) 예비조사

2011년 11월 중순에 부산, 양산에 거주하는 20명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척도 2차 시안을 적용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척도 이해도, 문항 내용 이해도, 응답 용이성을 살폈으며, 그 결과 어머니들의 행복에 대한 인식과 행복감을 살펴보는 연구도구로 사용되기에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3) 본조사

본조사는 2011년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실시되었다. 서울, 부산, 경기, 경남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교육기관의 기관장에게 전화하여 본 연구의 목적을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 다니고 있는 유아, 아동, 청소년의 어머니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설문지를 송부하였으며, 각 기관의 담임교사에게 응답요령과 연구자들의 연락처가 기재된 안내문과 함께 척도를 가정으로 전달하도록 요청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1년 11월 4주부터 12월 4주까지 5주간이었으며, 전체의 73.6%인 1,324부가 회수되었으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1,300명의 응답결과를 통계 처리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 개발을 위하여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요인분석, 상관분석과 t 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척도의 양호도

1) 척도의 타당도 분석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인타당도와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첫째, 척도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고, 행복요소에 따라 범주화하고자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어머니들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삭제한 29번, 43번, 44번 문항을 제외한 총 53개의 문항에 대하여 어머니들이 자신의 현재 행복감을 평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Factor analysis of items (Principal Component Analysis/Varimax/Eigen value 1.0)

Items	Factors								h <sup>2</sup>
	1	2	3	4	5	6	7	8	
18 Getting along amicably with my parent	.81	.17	.17	.16	.07	.11	.10	.05	.76
17 My children respect me	.78	.12	.16	.22	.10	.04	.17	.07	.74
16 Close relations with my children	.76	.12	.10	.25	.10	.07	.15	.09	.72
21 My husband and I respect each other	.73	.28	.25	.00	.12	.14	.01	-.04	.71
23 Putting my family ahead of everything	.71	.12	.15	.15	.04	.12	.06	.03	.59
19 Close relationships with my relatives	.70	.19	.20	.12	.11	.24	.07	-.08	.66
20 Getting recognized as a good son or daughter from parent	.69	.20	.22	.17	.15	.22	.09	.01	.67
15 Close relations between my children	.67	.10	.13	.20	.15	.00	.12	.13	.57
22 Close sexual relation with husband	.63	.29	.21	-.08	.13	.22	.03	-.07	.59
13 Children grow up well and healthy	.62	.05	.14	.34	.19	.04	.07	.26	.63



Table 5.  
Continued

Items	Factors								h <sup>2</sup>
	1	2	3	4	5	6	7	8	
14 Acceptance and encouragement with the way my children are	.60	.11	.20	.28	.16	.04	.13	.16	.56
55 Being happy with my children and family	.58	.19	.53	.13	.00	.17	.12	.06	.71
50 I believe that my children will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well	.43	.17	.35	.33	.09	.11	.33	-.05	.57
3 Enough money to buy what I want	.15	.85	.06	.08	.07	.09	.12	.22	.83
2 Enough living expenses	.18	.84	.03	.06	.02	.10	.13	.24	.82
1 Enough money to support the activities my children want to do and what they want to buy	.24	.76	.03	.11	-.04	.10	.08	.28	.75
34 Enjoying culture and trips with family	.23	.72	.17	.06	.12	.16	.07	-.05	.65
35 Having time to develop and recharge myself	.06	.72	.24	.16	.24	.13	.13	-.04	.70
33 Enjoying personal leisure	.11	.71	.23	.13	.17	.19	.09	-.05	.67
27 Having high social status or jobs	.08	.68	.23	.23	.30	.00	.18	-.04	.70
30 Being satisfied with my previous accomplishments	.19	.67	.16	.27	.17	.03	.15	-.05	.64
32 Having confidence in the path of my life	.28	.58	.32	.38	.17	.01	.12	-.17	.73
31 Having confidence of my life	.29	.55	.29	.37	.16	.06	.11	-.18	.69
28 Being respected by others	.17	.50	.24	.36	.36	.00	.19	-.08	.61
54 Feeling good often	.36	.24	.65	.10	.12	.24	.16	.08	.72
52 Having interests and passion in something	.26	.32	.64	.26	.23	.19	.13	.03	.75
56 Being satisfied with my daily life	.37	.38	.63	.14	.12	.15	.13	.04	.75
12 Living healthy and young	.37	.06	.62	.08	.08	.12	.30	.35	.76
51 I often lose track of time doing something	.25	.25	.60	.25	.13	.15	.11	-.05	.60
53 Concentrating on something	.19	.21	.59	.23	.17	.17	.02	-.04	.55
11 Having no fatal disease	.40	.02	.57	.09	.06	.05	.26	.36	.70
10 Confidence in my health	.25	.23	.53	.16	.15	.07	.44	.16	.67
48 Being positive every moment	.35	.22	.44	.25	.13	.18	.40	.04	.64
40 Coping with difficult situations and problems	.32	.19	.16	.72	.10	.15	.19	.10	.77
39 Helping myself with what I need to do	.32	.20	.17	.71	.15	.14	.11	.14	.75
41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my own opinion	.33	.21	.09	.67	.04	.19	.13	.12	.69
37 Interest in improving my life and related environments	.20	.32	.29	.59	.34	.10	.08	.02	.71
38 Doing meaningful and important things	.22	.34	.29	.54	.40	.07	.07	.01	.72
36 Efforts for realizing my dream	.12	.38	.34	.49	.38	.04	.08	-.05	.67
49 Having positive thoughts that I can cope with difficult problems	.39	.19	.36	.40	.07	.21	.38	-.02	.67
45 Participating in a voluntary service	.16	.22	.17	.11	.79	.15	.09	.09	.78
46 Donation to charity	.16	.29	.11	.11	.78	.12	.07	.14	.78
47 Feeling worth helping others	.25	.15	.10	.27	.68	.20	.09	.15	.70
42 Having religion	.08	.06	.05	.06	.62	.05	.14	-.08	.43
25 Getting along with others often	.25	.21	.23	.17	.18	.79	.16	.03	.88
26 Close communication with others often	.26	.20	.25	.18	.20	.75	.20	.01	.85
24 Having congenial friends and neighbors	.33	.16	.25	.18	.18	.71	.13	.13	.80
9 Maintaining standard body weight	.14	.20	.16	.07	.16	.04	.74	.10	.67
8 Confidence of my appearance	.22	.30	.26	.21	.17	.26	.64	-.06	.77
7 Agreeable appearance	.23	.28	.19	.18	.19	.35	.61	-.05	.74
6 Abundant educa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	.25	.44	.26	.28	.28	.09	.03	.44	.68
5 Fair society for getting paid for one's labor	.24	.38	.27	.33	.28	.10	.03	.43	.65
4 Secure social environment for caring my children	.34	.38	.22	.39	.15	.13	.03	.41	.68
Eigenvalue	23.8	3.8	2.2	1.9	1.6	1.3	1.1	1.1	
Explained variance (%)	45.0	7.1	4.1	3.7	2.9	2.4	2.1	2.1	
cumulative variance (%)	45.0	52.1	56.2	59.9	62.8	65.2	67.4	69.4	
Factor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Note. ① Family relations with family ② Laid-back life and self-esteem ③ Physical and mental health ④ Independency and development ⑤ Spirituality ⑥ Interpersonal relations ⑦ Appearance ⑧ Sociocultural environment

요인분석 결과 Table 5와 같이 아이겐 값이 1.0을 초과하는 8개의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8개 요인들의 전체 설명변량은 69.4%이며, 요인별로는 요인 1이 13개 문항으로 45.0%, 요인 2가 11개 문항으로 7.1%, 요인 3이 9개 문항으로 4.1%, 요인 4가 7개 문항으로 3.7%, 요인 5가 4개 문항으로 2.9%, 요인 6이 3개 문항으로 2.4%, 요인 7이 3개 문항으로 2.1%, 요인 8이 3개 문항으로 2.1%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8개 요인들 가운데 요인 1의 설명력이 가장 크고 다른 7개 요인들은 나머지 부분으로 설명하는데 골고루 기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8개 요인의 요인명은 연구자들의 협의에 따라 '가족관계', '삶의 여유와 자부심', '심신의 건강', '자립과 성장', '영성', '대인관계', '외모', '사회·문화환경'으로 부여하였다.

한편 요인분석 결과 가운데 '가족관계' 요인으로 분류된 55번 '자녀나 가족과 함께하며 느끼는 행복' 문항, '심신의

건강' 요인으로 분류된 48번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것' 문항, '자립과 성장' 요인의 49번 '어려운 환경에 자신이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문항,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의 6번 '풍부한 교육 문화적 환경' 문항과 4번 '자녀양육에 필요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환경' 문항은 각각의 제2요인과 요인부하량 차이가 .05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문항들은 분류된 요인 내의 다른 문항들과 내용상 일관성을 보이며, 다른 요인과는 변별되는 의미를 나타내어, 관련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행복요소의 구성 체계와 이론적으로 부합하였기에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였다.

둘째, 척도의 구인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어머니들의 현재 행복감 평정결과의 문항과 총점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Table 6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이다.

Table 6와 같이 문항별 Pearson 상관계수는 .41 ~ .76의 범

Table 6.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of total score and item score (N = 1,300)

Factor of happiness	Item	Correlation coefficient
1. Relations with family	1) Being happy with my children and family	.70**
	2) Children grow up well and healthy	.70**
	3) Acceptance and encouragement with the way my children are	.64**
	4) I believe that my children will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well.	.74**
	5) Close relations between my children	.70**
	6) Close relations between my children	.75**
	7) My children respect me	.66**
	8) My husband and I respect each other	.65**
	9) Close sexual relation with husband	.67**
	10) Getting along amicably with my parent	.41**
	11) Getting recognized as a good son or daughter from parent	.70**
	12) Close relationships with my relatives	.72**
	13) Putting my family ahead of everything	.71**
2. Laid-back life and self-esteem	1) Enough money to buy what I want	.63**
	2) Enough money to support the activities my children want to do and what they want to buy	.67**
	3) nough living expenses	.62**
	4) Having time to develop and recharge myself	.56**
	5) Enjoying personal leisure	.60**
	6) Enjoying culture and trips with family	.56**
	7) Having confidence of my life	.58**
	8) Being respected by others	.65**
	9) Having high social status or jobs	.64**
	10) Being satisfied with my previous accomplishments	.61**
	11) Having confidence in the path of my life	.71**
3. Physical and mental health	1) Confidence in my health	.67**
	2) Having no fatal disease	.60**
	3) Living healthy and young	.60**
	4) Having interests and passion in something	.64**
	5) I often lose track of time doing something	.56**
	6) Concentrating on something	.63**
	7) Being satisfied with my daily life	.63**
	8) Being positive every moment	.62**
	9) Feeling good often	.58**

Table 6.  
Continued

Factor of happiness	Item	Correlation coefficient
4. Independency and development	1) Having positive thoughts that I can cope with difficult problems	.69**
	2) Coping with difficult situations and problems	.66**
	3) Helping myself with what I need to do	.64**
	4) Decision making according to my own opinion	.72**
	5) Interest in improving my life and related environments	.69**
	6) Efforts for realizing my dream	.58**
	7) Doing meaningful and important things	.65**
5. Spirituality	1) Participating in a voluntary service	.78**
	2) Donation to charity	.67**
	3) Feeling worth helping others	.62**
	4) Having religion	.76**
6. Interpersonal relations	1) Close communication with others often	.71**
	2) Getting along with others often	.76**
	3) Having congenial friends and neighbors	.55**
7. Appearance	1) Agreeable appearance	.72**
	2) Confidence of my appearance	.72**
	3) Maintaining standard body weight	.73**
8. Sociocultural environment	1) Abundant educational and cultural environment	.72**
	2) Secure social environment for caring my children	.71**
	3) Fair society for getting paid for one's labor	.71**

\*\* $p < .01$ .

위의 상관을 보였고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척도의 각 문항과 총점이 같은 경향성을 가지고,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도구임이 입증되었다.

셋째, 내용타당도는 이미 시안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아동학, 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전공 교수 4명, 박사학위를 가진 연구원 1명, 박사과정 수료자 4명이 연구목적의 적절성, 내용의 일관성, 각 요인 내 문항 간 상호보타성, 용어 사용의 적절성, 응답 방식의 적절성 및 문장의 이해도를 살펴 검토한 바 있었으며,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후 요인 내 문항 간 상호보타성, 요인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를 한 번 더 의뢰하여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8개 영역 5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가 도출되었다.

2) 척도의 신뢰도 분석

어머니 행복감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척도와 하위 영역의 문항내 적합치도를 산출하였다. 척도의 Cronbach- $\alpha$  계수는 Table 7에 제시하였다.

문항내적합치도 산출 결과 문항 전체의 Cronbach  $\alpha$  계수는 .98로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 영역에서는 .83 ~ .94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본 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동질성이 입증되었고, 그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Cronbach  $\alpha$  coefficients of the scale (N = 1,300)

Factors of happiness	Number of items	Cronbach- $\alpha$ coefficient
Relations with family	13	.94
Laid-back life and self-esteem	11	.94
Physical and mental health	9	.92
Independency and development	7	.91
Spirituality	4	.83
Interpersonal relations	3	.93
Appearance	3	.83
Sociocultural environment	3	.88
<b>Scale</b>	<b>53</b>	<b>.98</b>

2. 문항의 양호도

1) 문항반응분포 분석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의 문항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문항반응분포를 살펴보았다. 문항반응분포 분석결과는 Table 8와 같다.

문항내적합치도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로 어머니들이 자신의 현재 행복감을 평정한 결과를 토대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 결과 문항들의 반응분포는 부적편포를 보인 문항들이 많았으며, 정상분포

Table 8.  
Distribution of item response ( $N = 1,300$ )

Factors	Items	N (%)						M	SD	
		Non-response	1	2	3	4	5			6
①	1)	7(.5)	13(1.0)	25(1.9)	124(9.5)	305(23.5)	506(38.9)	320(24.6)	4.72	1.06
	2)	6(.5)	9(.7)	20(1.5)	80(6.2)	252(19.4)	450(34.6)	483(37.2)	4.98	1.03
	3)	8(.6)	7(.5)	36(2.8)	137(10.5)	357(27.5)	487(37.5)	268(20.6)	4.61	1.05
	4)	8(.6)	23(1.8)	60(4.6)	182(14.0)	398(30.6)	454(34.9)	175(13.5)	4.34	1.13
	5)	33(2.5)	26(2.0)	31(2.4)	138(10.6)	304(23.4)	433(33.3)	335(25.8)	4.65	1.17
	6)	7(.5)	8(.6)	20(1.5)	97(7.5)	265(20.4)	523(40.2)	380(29.2)	4.87	1.01
	7)	11(.8)	12(.9)	21(1.6)	110(8.5)	307(23.6)	506(38.9)	333(25.6)	4.76	1.04
	8)	12(.9)	41(3.2)	41(3.2)	142(10.9)	305(23.5)	446(34.3)	313(24.1)	4.56	1.24
	9)	17(1.3)	63(4.8)	72(5.5)	184(14.2)	351(27.0)	386(29.7)	227(17.5)	4.25	1.33
	10)	11(.8)	9(.7)	22(1.7)	75(5.8)	293(22.5)	506(38.9)	384(29.5)	4.88	1.00
	11)	11(.8)	16(1.2)	32(2.5)	135(10.4)	345(26.5)	501(38.5)	260(20.0)	4.60	1.07
	12)	10(.8)	19(1.5)	32(2.5)	145(11.2)	331(25.5)	490(37.7)	274(21.0)	4.60	1.10
	13)	7(.5)	14(1.1)	16(1.2)	89(6.8)	255(19.6)	476(36.6)	443(34.1)	4.93	1.05
②	1)	7(.5)	58(4.5)	172(13.2)	441(33.9)	416(32.0)	172(13.2)	34(2.6)	3.44	1.10
	2)	4(.3)	24(1.8)	85(6.5)	323(24.8)	482(37.1)	321(24.7)	61(4.7)	3.91	1.05
	3)	5(.4)	51(3.9)	133(10.2)	441(33.9)	461(35.5)	180(13.8)	29(2.2)	3.52	1.05
	4)	7(.5)	167(12.8)	263(20.2)	382(29.4)	291(22.4)	154(11.8)	36(2.8)	3.09	1.29
	5)	5(.4)	95(7.3)	228(17.5)	348(26.8)	357(27.5)	222(17.1)	45(3.5)	3.40	1.26
	6)	3(.2)	78(6.0)	209(16.1)	365(28.1)	349(26.8)	242(18.6)	54(4.2)	3.49	1.25
	7)	3(.2)	23(1.8)	99(7.6)	281(21.6)	472(36.3)	332(25.5)	90(6.9)	3.97	1.10
	8)	12(.9)	87(6.7)	184(14.2)	388(29.8)	407(31.3)	175(13.5)	47(3.6)	3.42	1.19
	9)	8(.6)	170(13.1)	216(16.6)	404(31.1)	321(24.7)	145(11.2)	36(2.8)	3.13	1.28
	10)	9(.7)	42(3.2)	144(11.1)	395(30.4)	449(34.5)	226(17.4)	35(2.7)	3.60	1.08
	11)	6(.5)	30(2.3)	100(7.7)	297(22.8)	456(35.1)	309(23.8)	102(7.8)	3.94	1.14
③	1)	8(.6)	36(2.8)	89(6.8)	289(22.2)	463(35.6)	287(22.1)	128(9.8)	3.98	1.17
	2)	7(.5)	19(1.5)	33(2.5)	135(10.4)	319(24.5)	442(34.0)	345(26.5)	4.68	1.14
	3)	7(.5)	16(1.2)	34(2.6)	167(12.8)	316(24.3)	438(33.7)	322(24.8)	4.62	1.14
	4)	13(1.0)	44(3.4)	108(8.3)	251(19.3)	383(29.5)	357(27.5)	144(11.1)	4.04	1.25
	5)	8(.6)	33(2.5)	82(6.3)	266(20.5)	393(30.2)	372(28.6)	146(11.2)	4.10	1.19
	6)	7(.5)	34(2.6)	100(7.7)	231(17.8)	371(28.5)	389(29.9)	167(12.8)	4.17	1.47
	7)	7(.5)	31(2.4)	72(5.5)	222(17.1)	412(31.7)	398(30.6)	158(12.2)	4.20	1.17
	8)	7(.5)	18(1.4)	54(4.2)	192(14.8)	376(28.9)	440(33.8)	213(16.4)	4.40	1.13
	9)	7(.5)	17(1.3)	76(5.8)	198(15.2)	432(33.2)	415(31.9)	155(11.9)	4.25	1.12
④	1)	7(.5)	18(1.4)	65(5.0)	176(13.5)	380(29.2)	458(35.2)	196(15.1)	4.38	1.13
	2)	13(1.0)	16(1.2)	53(4.1)	206(15.8)	432(33.2)	415(31.9)	165(12.6)	4.30	1.09
	3)	13(1.0)	17(1.3)	36(2.8)	176(13.5)	400(30.8)	465(35.8)	193(14.8)	4.43	1.07
	4)	12(.9)	19(1.5)	46(3.5)	192(14.8)	437(33.6)	442(34.0)	152(11.7)	4.31	1.07
	5)	16(1.2)	40(3.1)	97(7.5)	279(21.5)	386(29.7)	353(27.2)	129(9.9)	4.01	1.22
	6)	18(1.4)	71(5.5)	152(11.7)	350(26.9)	374(28.8)	240(18.5)	95(7.3)	3.66	1.27
	7)	15(1.2)	53(4.1)	124(9.5)	283(21.8)	396(30.5)	308(23.7)	121(9.3)	3.89	1.26
⑤	1)	7(.5)	262(20.2)	233(17.9)	305(23.5)	258(19.8)	161(12.4)	74(5.7)	3.03	1.48
	2)	9(.7)	206(15.8)	260(20.0)	339(26.1)	277(21.3)	156(12.0)	53(4.1)	3.06	1.38
	3)	8(.6)	88(6.8)	159(12.2)	297(22.8)	354(27.2)	282(21.7)	112(8.6)	3.71	1.35
	4)	12(.9)	185(14.2)	164(12.6)	267(20.5)	285(21.9)	214(16.5)	173(13.3)	3.54	1.58
⑥	1)	8(.6)	31(2.4)	106(8.2)	229(17.6)	381(29.3)	400(30.8)	145(11.2)	4.12	1.21
	2)	10(.8)	33(2.5)	96(7.4)	239(18.4)	378(29.1)	398(30.6)	146(11.2)	4.12	1.21
	3)	7(.5)	19(1.5)	69(5.3)	194(14.9)	383(29.5)	440(33.8)	188(14.5)	4.33	1.14

Table 8.  
Continued

Factors	Items	N (%)						M	SD	
		Non-response	1	2	3	4	5			6
⑦	1)	10(.8)	39(3.0)	76(5.8)	316(24.3)	476(36.6)	307(23.6)	76(5.8)	3.90	1.10
	2)	8(.6)	38(2.9)	73(5.6)	303(23.3)	501(38.5)	305(23.5)	72(5.5)	3.91	1.09
	3)	11(.8)	62(4.8)	134(10.3)	299(23.0)	383(29.5)	284(21.8)	127(9.8)	3.83	1.29
⑧	1)	12(.9)	50(3.8)	141(10.8)	395(30.4)	399(30.7)	225(17.3)	78(6.0)	3.65	1.18
	2)	14(1.1)	27(2.1)	77(5.9)	289(22.2)	434(33.4)	326(25.1)	133(10.2)	4.05	1.15
	3)	12(.9)	37(2.8)	129(9.9)	336(25.8)	407(31.3)	279(21.5)	100(7.7)	3.82	1.19

Note. ① Family relations with family ② Laid-back life and self-esteem ③ Physical and mental health ④ Independency and development ⑤ Spirituality ⑥ Interpersonal relations ⑦ Appearance ⑧ Sociocultural environment

를 보이는 문항들도 다소 있었다. 하지만 극단의 평균(M) 5.5,  $M < 0.5$ 이나 지나치게 낮은 표준편차( $SD < .05$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항변별도 분석

본 척도의 하위문항들이 어머니들의 현재 행복감 상·하위 집단을 잘 변별해주는가를 살펴 문항양호도를 검증하였다. 어머니들의 행복감 총점 상위 33% 집단( $n = 429$ )과 하위

33% 집단( $n = 426$ )간에 문항별로 평균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는 Table 9 에 제시하였다.

Table 9와 같이 행복감 총점 상·하위 집단의 각 문항별 점수를 독립표본  $t$ -검정으로 비교한 결과, 53개 전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이를 통해 본 척도는 상하위집단간 차이를 잘 변별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임이 검증되었다.

Table 9 .  
Item discrimination analysis of high class and low class (N = 855)

Factors	Items	High class (n = 429) M (SD)	Low class (n = 424) M (SD)	t
1. Relations with family	1)	5.43 (.65)	3.92 (1.09)	24.65***
	2)	5.57 (.61)	4.29 (1.16)	20.22***
	3)	5.30 (.73)	3.90 (1.03)	22.74***
	4)	5.08 (.81)	3.55 (1.13)	22.74***
	5)	5.32 (.84)	3.90 (1.23)	19.57***
	6)	5.50 (.61)	4.14 (1.08)	22.57***
	7)	5.43 (.65)	4.00 (1.09)	23.23***
	8)	5.38 (.81)	3.66 (1.23)	24.13***
	9)	5.08 (.97)	3.35 (1.29)	22.02***
	10)	5.53 (.64)	4.14 (1.05)	23.23***
	11)	5.32 (.70)	3.78 (1.11)	24.27***
	12)	5.32 (.73)	3.81 (1.12)	23.29***
	13)	5.50 (.70)	4.28 (1.19)	18.26***
2. Laid-back life and self-esteem	1)	4.15 (.97)	2.70 (.96)	21.97***
	2)	4.50 (.90)	3.26 (1.02)	18.84***
	3)	4.15 (.94)	2.84 (.98)	19.92***
	4)	4.03 (1.14)	2.18 (1.00)	25.18***
	5)	4.27 (1.04)	2.50 (1.04)	24.81***
	6)	4.31 (1.05)	2.63 (1.04)	23.51***
	7)	4.80 (.79)	3.12 (1.01)	27.10***
	8)	4.30 (.91)	2.50 (1.03)	26.96***
	9)	4.08 (1.05)	2.21 (1.07)	25.69***
	10)	4.36 (.87)	2.86 (1.00)	23.38***
	11)	4.83 (.83)	3.03 (.98)	28.74***

Table 9.  
Continued

Factors	Items	High class (n = 429) M (SD)	Low class (n = 424) M (SD)	t
3. Physical and mental health	1)	4.79 (.92)	3.11 (1.06)	24.61***
	2)	5.34 (.75)	3.98 (1.23)	19.67***
	3)	5.33 (.73)	3.81 (1.20)	22.41***
	4)	5.03 (.76)	2.90 (1.06)	33.86***
	5)	4.91 (.84)	3.17 (1.07)	26.40***
	6)	5.05 (.77)	3.12 (1.13)	29.26***
	7)	5.10 (.74)	3.17 (1.00)	32.02***
	8)	5.27 (.70)	3.49 (1.06)	29.00***
	9)	5.06 (.76)	3.31 (1.00)	28.87***
4. Interdependency and development	1)	5.21 (.71)	3.44 (1.11)	27.69***
	2)	5.07 (.79)	3.49 (1.05)	24.76***
	3)	5.17 (.74)	3.62 (1.06)	24.68***
	4)	5.00 (.82)	3.57 (1.08)	21.73***
	5)	4.97 (.82)	3.02 (1.10)	29.21***
	6)	4.65 (.96)	2.68 (1.08)	27.97***
	7)	4.88 (.86)	2.82 (1.07)	31.05***
5. Spirituality	1)	4.21 (1.22)	1.93 (.98)	30.03***
	2)	4.13 (1.16)	2.08 (1.02)	27.43***
	3)	4.70 (.97)	2.71 (1.18)	26.99***
	4)	4.27 (1.53)	2.85 (1.43)	13.96***
6. Interpers-onal relations	1)	4.93 (.85)	3.12 (1.12)	26.57***
	2)	4.97 (.84)	3.10 (1.11)	27.75***
	3)	5.15 (.74)	3.41 (1.10)	27.10***
7. Appearance	1)	4.72 (.76)	3.04 (1.00)	27.61***
	2)	4.70 (.79)	3.04 (.98)	27.40***
	3)	4.58 (1.07)	3.05 (1.25)	19.20***
8. Socio- cultural environment	1)	4.59 (.93)	2.74 (.97)	28.47***
	2)	4.94 (.84)	3.17 (.98)	28.15***
	3)	4.79 (.89)	2.90 (.96)	29.64***

\*\*\*p < .001.

#### IV. 논 의

본 연구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그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과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연구자들은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살펴볼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기초로 어머니 행복의 준거가 되는 요소들을 탐색하고, 한국에서 현재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을 위한 척도임에 근거해 그 구성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내용타당도 검토 결과와 어머니들의 적절성 평정 결과를 반영하여 척도 시안을 구성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절차의 효과성과 응답의 편의를

위해 6단계로 평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행복감을 간명하고 타당한 지표로 살펴면서도 중앙집중경향의 오류를 줄이고 응답자의 의증을 밝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본 척도는 행복감의 전반적 경향을 살펴거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비교할 수 있는 틀로 활용할 수 있으며, 어머니 스스로 자신의 행복감을 자각해보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행복은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개념으로[7, 33], 개인의 상황이나 맥락, 그에 따른 감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행복연구에서 일상세계와 그 삶의 경험, 일상생활의 순간순간에 느끼는 정서경험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음[9]을 주지하여, 어머니들의 목소리와 경험을 담아낼 수 있는 질적 정보와 더불어 본 척도가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 행복감 척도의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며, 자녀가 유·초·중등 교육기관 및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1,300명의 어머니들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거주지역과 자녀의 생애주기 및 장애여부를 고려하여 다수의 어머니를 연구에 포함하였으나, 거주지역의 분포가 제한적이고 비율적 표집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본 척도의 타당화 절차가 갖는 제한점이다. 더욱 광범위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한 추후연구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어머니 행복감 척도의 양호도 검토는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자들은 요인분석과 행복감 총점과 하위 문항 간의 상관을 살펴본다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으며, 전문가와 어머니들에게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또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산출한 내적합치도가 매우 양호하여 본 척도가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어머니 행복감 척도의 하위요인은 '가족관계', '삶의 여유와 자부심', '심신의 건강', '자립과 성장', '영성', '대인관계', '외모', '사회·문화환경' 등 8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제1요인인 '가족관계'는 Shin (pp. 14-31)[36]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바 있으며, Kim 외[17], Diener 외[6], Ryff 외[33], Seligman (pp. 16-25)[35]의 연구에서 '관계' 요소에 포함되어 언급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특히, 어머니의 행복에 초점을 둔 본 척도는 자녀와 배우자, 친지와의 지지적이고 원만한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가족관계' 요인에 가장 많은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자녀와의 관계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특성을 갖는다. 한편 '삶의 여유와 자부심'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경제력'과 '여가' 관련 요소(pp. 8-22)[1], [17], (pp. 14-31)[36], '사회적 지위와 인정' 관련 요소(pp. 8-22)[1], [7, 17, 33], (pp. 16-25)[35], [36], '자기수용' 관련 요소[7, 17, 33], (pp. 14-31)[36]들을 아우르는 것으로, 물리적인 여유와 함께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수용되고 인정받는 심리적인 만족감이 행복의 주요 요소임을 보여 준다. 또한 '심신의 건강' 요인 역시 선행연구에서 분리되어 제시되었던 '신체적 건강' 관련 요인[17], (pp. 14-31)[36]과 '긍정적 정서' 관련 요인(pp. 8-22)[1], [7, 17], (pp. 89-206)[25], (pp. 16-25)[35]이 통합된 것으로,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행복은 몸과 마음의 안녕감이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자립과 성장', 내적인 삶의 발전을 위해 실천해나가는 '영성', 신체 건강과 외적 아름다움의 유지에 관한 '외모' 요인 및 자녀양육과 자신의 예측적이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사회·문화환경' 또한 어머니의 행복에 필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몇몇

문항들은 2개 이상의 요인에 유사하게 적재되어, 요인구성의 적합성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자녀나 가족과 함께하며 느끼는 행복'은 '가족관계' 요인에,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심신의 건강' 요인에, '어려운 환경에 자신이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자립과 성장' 요인에, '풍부한 교육 문화적 환경'과 '자녀양육에 필요한 안전하고 안정된 사회환경'은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에 근소한 차이이나 가장 큰 부하량을 보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상으로도 어색함이 없었다. 또한 각 요인 내 다른 문항들과 내용의 일관성이 있고, 다른 요인과는 변별되는 의미를 가지며, 관련 선행연구[17], (pp. 89-206)[25], [33], (pp. 16-25)[35]에서 제시되었던 행복요소의 구성 체계와 부합하기에, 이 문항들을 척도의 구성 문항으로 확정하였다. 하지만 이 문항들의 요인구성 적합성은 추후 연구를 통해 더욱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겠다.

한편 척도의 하위문항 가운데 '높은 학력을 가지는 것'과 '종교를 가지는 것', '종교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 '종교적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과 같은 문항에 대한 어머니들의 적절성 인식이 다른 문항보다 낮게 나타나 삭제하거나 통합하였다. 이는 높은 학력과 종교를 가지는 것 자체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는 어머니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며, 본 척도에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전반적인 행복감과 학력의 관계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도 있으나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밝혀진 바 있고 [15, 17, 28], 또한 일반 성인들의 경우 종교가 행복의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pp. 8-22)[1], [17], (pp. 14-31)[36]도 있어 학력과 종교는 행복 연구에서 계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행복에 관해 관련 전문가 및 부모들의 의견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렴하였기 때문에, 본 척도의 문항들은 어머니들의 행복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척도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어머니들의 전반적인 행복감 수준을 살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각 행복 요소를 얼마나 향유하고 있고 행복을 많이 느끼는 요소가 무엇이며 또한 행복한 삶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탐색 결과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및 가족상담, 행복 증진 프로그램의 실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척도의 문항양호도는 문항반응분포와 문항변별도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문항반응분포를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부적편포를 보이거나, 극단적인 평균이나 지나치게 낮은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문항이 없어 척도를 구성하

는 문항으로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문항변별도에서도 모든 문항에서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어 문항들이 응답대상자들의 특성을 변별해 줄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척도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들의 행복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되기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총 8개 영역 53개 문항으로 구성된 ‘유아-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척도’를 최종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부산, 경기, 경남에 거주하며, 유아, 초등, 중등교육기관 및 특수학교에 장애, 비장애 자녀를 취학시키고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대상의 지역적 분포 제한에 따른 결과 해석상의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유아, 아동 및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반영하였으나, 자녀의 생애주기별 어머니의 특성을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하였기에 후속연구로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다양한 조건의 어머니들의 행복감의 차이와 그 영향 요인, 자녀의 행복과의 관련성 등, 폭넓은 어머니 행복 관련 연구를 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앞으로 또 다른 자녀양육자로서 아버지의 행복감 척도의 개발이 요구된다.

## Reference

- Argyle, M. (2002). *The psychology of happiness*. London: Routledge.
- Chiasson, N., Dube, L., & Blondin, J. (1996). A look into the folk psychology of four cultural grou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27, 673-691.
- Choi, H. S., & Chung, O. B. (2005). The causal relations model of Korean mothers' parenting self-efficacy: Focusing on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tres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12(1), 51-67.
- Chung, K., Yoo, M., Park, S., & Choi, E. (2012). Maternal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across the life-cycles of their children. *Korean Association of Child Studies*, 33(4), 67-87.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3, 542-575.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Diener, E., Wirtz, D., Tov, W., Kim-Prieto, C., Choi, D., Oishi, S., et al. (2010). New well-being measures: Short scales to assess flourishing and positive and negative feelings. *Social Indicators Research*, 97(2), 143-156.
- Dunst, C. J., Hamby, D. W., & Brookfield, J. (2007). Modeling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variables on parent and family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Quantitative Methods*, 2(3), 268-288.
- Han, K. H., & Chang, M. N. (2011). A study of daily happiness of married women with young children using the day reconstruction method.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6(4), 5-27.
- Han, M., & Han, S., Y. (2008). A quantitative study of validating "Shinmyeong".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27(1), 259-280.
- Han, M., & Han, S., Y. (2009). The happiness as a cultural concept: Understanding "Shinmyeong".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5(1), 81-94.
- Holden, G. W. (2010). *Parenting: A dynamic perspective*. Los Angeles, CA: Sage.
- Jo, S. Y., Back, K. S., Ok, K. H., Jeon, H. J., & Jeon, Y. J. (2008). *Family relations*. Seoul: Yang-seowon.
- Kim, D. R., & Kim, J. W. (2008).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of young children and that of their parent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3(6), 311-333.
- Kim, J. B., & Kim, T. E. (2008).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Korean school happiness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1), 259-279.
- Kim, M. S., & Han, W. S. (2006). The development of happiness index for Korean. *Survey Research*, 7(2), 1-38.
- Kim, M. S., Kim, H. W., Cha, K. H., Lim, J. Y., & Han, Y. S. (2003). Exploration of the structure of happy life and development of the happy life scale among Korean adul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8(2), 415-442.
- Koo, J. S., & Kim, U. C. (2005). Happiness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Korean students and



- adults: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12(2), 77-100.
19. Koo, J. S., & Suh, E. K. (2011). Happiness in Korea: Who is happy and whe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2), 143-166.
  20. Kozma, A., Stone, S., & Stones, M. J. (1999). Stability in components and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SWB): Implications for SWB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1), 152-161.
  21. Lee, D., Park, S., Uhlemann, M., & Patsula, P. (1999). What makes you happy?: A comparison of self-reported criteria of happiness between two cultur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50, 351-362.
  22. Lee, S. J., & Ahn, S. H. (2005). What is happiness?: A review of happiness. *Psychological Science Research*, 4, 123-143.
  23. Markus, H. R.,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24. Moon, S. K., Lee, M. Y., & Park, S. H. (200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well-being of parents. *Th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4), 137-153.
  25. Moon, Y. R. (2011). *Conditions of happiness growth*. Seoul: Leader's Book.
  26. Park, H. K., & Yoon, G. J. (2012). The effects of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3(2), 243-261.
  27. Park, J. K., & Her, J. O. (2005). Study about coping strategy of the parent of childr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The Educational Journal for Physical and Multiple Disabilities*, 45, 259-280.
  28. Park, J., Seo, B., Choi, E., & Park, H. (2012). Maternal perceptions of happiness for preschool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2(2), 79-107.
  29. Park, Y. S., & Kim, U. C. (2009). Factor influencing happiness among Korean adults: The influence of occupational achievement, success of children, emotional support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Women's Psychology*, 14(3), 467-495.
  30. Rye, J. H. (2007). On the relationship of virtue to knowledge and eudainomia in Eudainonism, *The Korea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14, 91-111.
  31.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32. Ryff, C. D., & Keyes, C. L.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9, 719-727.
  33. Ryff, C. D., & Singer, B. H. (2008). Know thyself and become what you are: A eudaimonic approach to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9, 13-39.
  34. Ryu, K., & Rie, J. (2010). The factors of happy life among Korean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4(2), 89-104.
  35. Seligman, M.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Y: Free Press.
  36. Shin, J. (2007). *Development of a happiness scale for the Korea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37. Song, S. J. (1999). Korean culture and family therapy: Applying to solving problems skills to family 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32(8), 160-180.
  38. Suh, E. K., & Koo, J. S. (2011). A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 (COMOSWB):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1), 95-113.
  39.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2001). *The Korean language dictionary*. Seoul: Minjungseokwan.
  40. Triandis, H. C. (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 *Psychological Review*, 96, 506-520.
  41. Veehoven, R. (1984). *Conditions of happiness*. Dordrecht, Holland and Boston Hingham. MA: Reidel.

---

접 수 일 : 2012년 9월 30일

심사시작일 : 2012년 10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2년 11월 21일